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 및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차이 분석

박 민 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원) ·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여가·민투센터장)

본 연구는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유무에 따라 시간자원(평일·평일희망·휴일·휴일희망여가시간)과 여가환경(여가비용, 희망여가비용, 참여 동호회 수, 사용 휴가일 수), 여가만족도 및 행복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원자료는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 전체 5,003명의 표본 중 연구대상자인 근로자 2,3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검증, 교차분석,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시간자원과 여가환경은,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는 휴일여가시간과 휴일희망여가시간이 주 40시간 근무제 미시행 근로자의 휴일여가시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일희망여가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 미시행 근로자의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평일희망여가시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환경은,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의 여가비용과 희망여가비용이 주 40시간 근무제 미시행 근로자의 여가비용과 희망여가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휴가일 수는 주 40시간 근무제 미시행 근로자에 비해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자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여부에 만족도와 행복수준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차이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 미시행 근로자 보다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자 남성과 여성의 주40시간제 시행여부에 따른 시간자원과 여가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시간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평일희망여가시간, 휴일여가시간, 휴일희망여가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남성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환경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 남성의 여가비용, 희망여가비용, 사용 휴가일 수에 있어서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 남성의 여가비용, 희망여가비용과 사용 휴가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시간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자원은 평일여가시간, 평일희망여가시간, 휴일여가시간 주 40시간 근무제 여성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환경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 여성의 사용 휴가일 수에 있어서 주 40시간 근무제 근로자 여성의 사용 휴가일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자 성별에 따른 여가만족도와 행복수준은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 보다 여가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여성근로자 모두 주40시간 근무 유무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은 주40시간 근무제를 실행하는 남성·여성근로자의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시간자원과 여가환경이 좋고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도 뛰어나다. 또한 근로자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여성이 남성보다는 많은 여가생활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